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참 고</h1>		 금융감독원
보도	2019.12.17.(화) 10:30부터	배포	2019.12.17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담 당 자	황 기 정 사무관(02-2100-2832) 최 범 석 사무관(02-2100-2836)
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이 수 영(02-2100-2510)		홍 상 준 사무관(02-2100-2514) 김 기 태 사무관(02-2100-2523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	권 민 영 사무관(02-2100-2991)
	금융위 보험과장 김 동 환(02-2100-2960)		이 정 찬 사무관(02-2100-2972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부 곤 팀장(02-3145-8040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		서 영 일 팀장(02-3145-7455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이 희 준(02-3145-8070)		정 대 헌 팀장(02-3145-8072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영 주(02-3145-6770)		정 용 결 팀장(02-3145-6772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이 상 민(02-3145-7550)		이 호 진 팀장(02-3145-7447)
	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장 우 병 국 (051-663-8401)		김 진 영 팀장(051-663-8421)

제 목 :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 관련 금융권 설명회 개최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'19.12.17(화) 은행연합회에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- 일시 / 장소 : '19.12.17(화) 10:30 /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
- 참석자 : (금융위) 금융정책과장, 가계금융과장
(금감원) 은행감독국장, 가계신용분석팀장
(협회) 은행연합회, 생·손보험회,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 여신담당 관계자
(금융회사) 주요 금융회사 여신담당 관계자

- 금융위원회는 금변 대책이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, 주택시장을 철저히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,
 -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부문 대책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, 대출규제 우회행위나 전세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임을 설명하였습니다.
- 이어서, 금융회사 대상으로 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,
 -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없도록, 금변대책의 세부사항을 현장에 차질 없이 전파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- 한편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은 금변 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합동으로 '현장점검반'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합동점검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일선 영업창구에서 금변대책의 세부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·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.
 - 또한,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, 필요한 부분은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.

<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계획 >

1 현장점검반 구성 (반장 : 금융정책과장)

- (총괄·은행팀) 금융위 금융정책과장(팀장)·가계금융과장
금감원 은행감독국장, 은행연합회 여신담당 임원
- (보험팀) 금융위 보험과장(팀장)
금감원 보험감독국장, 생·손보험회 여신담당 임원
- (비은행팀) 중소금융과장(팀장)
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, 저축은행감독국장, 여신금융감독국장
상호금융중앙회·저축은행중앙회·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담당 임원

2 현장점검 계획

- (점검기간) '19.12.17~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될 때까지 지속 운영
- (점검지역) 서울지역 금융회사 본부 및 일부 지점
- (점검대상) ① '주택시장 안정화 방안' 규제 숙지 여부
② 전산개발 등 규제이행 준비 상황
③ 실제 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청취·개선 등

□ 금융위원회는 이번 '주택시장 안정화 방안'이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며,

-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는 만큼,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